

또 막힌 대통령실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확보 못해

공조본,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도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대통령실에 대한 2차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검찰은 별도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구속하는 등 내란 핵심 가담자에 대한 신병을 속속 확보하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1일 1차 압수수색 불발에 이어 두번째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8시간 여 대기하다 철수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로 조 청장과 6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대통령 경호처가 지급·관리 한다.

경호처는 이날 압수수색에는 협조하지 않았지만,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18일 알려 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졌다.

경호처는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 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을 막아냈다.

당시 경찰은 경호처가 임의로 제출한 일부 자료만 확보해 받듯 돌아갔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거부 근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111조) 등이었다.

공조본은 이날 조 청장 공판에 대해서도 압수수

윤 대통령, 경찰청장과 6차례 통화 경호처 지급·관리...청사 진입 거부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구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 청구

색을 단행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은 비상계엄 전 대통령 안가 출입 인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경찰 국수본이 신청한 비상계엄 당일 서울 삼천동 대통령 안전교육과 주변 CCTV 영상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국수본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안산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 사전모의를 했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당시 업체 안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문 사령관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풀려났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문 사령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박 총장은 이날 내란중요인물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참석자들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업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조 청장에게 이 포고령을 토대로 국회 봉쇄를 지시한 것도 박 총장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그동안 "대통령의 답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변호인단을 꾸려 소환조사 등에 대비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현직 육군 수장 구속, 12·12 정승화 이후 45년만

박안수 구속에 군 내부 충격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사진)이 17일 구속되자 군 내부도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현직 장성이 구속되는 사례는 들어봤어도, 현직 육군총장이 구속되는 것은 군 생활하면서 처음 본다"고 말했다.



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이다.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육사5기)은 박 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건'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돼 사태를 수습하던 중, 전두환

육군참모총장은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이다. 국군 의전 서열로는 합참의장에 이어 2위다.

1968년생인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육군총장이 재임 중 체포·구속된 것은 1979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 반란으로 체포됐다.

정 총장은 10·26 당시 내란을 방조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후 군사법원에서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그 중역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는 1980년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두 육군총장이 구속된 배경은 다르지만, 육사 출신 육군총장으로서 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관을 맡았고, 내란 관련 죄목으로 구속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합뉴스

검찰,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7일 오전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베나몬테즈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尹, 또 수취 거부...탄핵심판 절차 지연 우려

현재, 인편·우편·전자문서 3중 송달 대통령실 서류 접수 확인 안해줘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헌법재판소(현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보냈지만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심판 서류는 당사자가 송달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현재에 따르면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보

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청구서를 보냈다.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 현재 공보관은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송달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송달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아 윤 대통령이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장 27일로 예정된 현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늦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에 대통령 법률대리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

았다. 현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보낸 우편에 대한 수취를 거부했다.

공조본은 이를 불출석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1일 소환통보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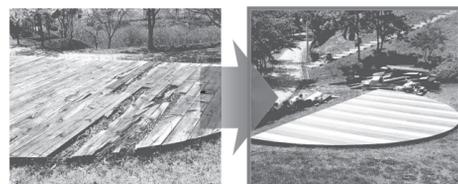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